日 국회의원 "조선왕실의궤 반환 돕겠다"

사고지 방문, 정념 스님 등과 반환 논의
환수위 "일본 지식인과 연대 운동 전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가운데)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오대산 사고지를 둘러보고 있다.

"한국측이 조선왕실의궤 반환 청원을 하면 일본 국회에 접수되도록 노력하겠다."

일본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돕기 위해 방한한 일본 국회의원들이 8월 21일 원래 소장처인 평창 월정사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오가타 야스오(緖方靖夫) 일본 공산당 부위원장(前 참의원 의원)과 카사이 아키라(笠井亮) 중의원 의원은 이날 오대산 사고지를 방문해 조선왕실의궤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 공동대표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등과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일본 참의회 외교방위위원회 166회 회의에서 일본 외무대신 아소 다로(麻生太郎)에게 "조선왕실의궤를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아소 외상은 조선왕실의궤가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 소유지만 "지난해 도쿄대가 기증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처럼 개별적인 사례로 인식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카타 야스오 부위원장 지난 7월 17일 환수위와 일본 외무성과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면담에서 일본 외무성은 "한 · 일 조약 원칙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반환에 응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념 스님은 "먼저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노력하고 있는 두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조선왕실의궤가 산중으로 돌아올 때 더욱 의미가 빛나고 양국 우호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가타 야스오 부위원장은 "조선왕실의궤 고향에 직접 와 보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조선왕실의궤가 일본 궁내청에 있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역사 ·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가치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유네스코 협약을 봐서라도 조선왕실의궤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카사이 아키라 중의원 의원 또한 "한국측이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청구한다면 일본 국회에 접수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방한 경험을 다른 정당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환수위 간사 혜문 스님은 "조선왕실의궤가 일본 궁내청에 있는 것은 향후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올 9월부터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연대해 반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 월정사/글 · 사진=남동우 기자

Tip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조선왕실의궤는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오대산 사고를 해체하고 궁내청에 기증한 것으로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등 72종 86책에 이른다. 환수위는 지난 5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갓바위 부처님 국보 될까?

매년 250만 참배객 찾아…연말 결정

갓바위 부처로 널리 알려져 있는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431호)이 국보가 될 수 있을까?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최근 문화재청에 관봉석조여래좌상의 국보 승격을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석불은 조성연대와 조각양식, 보존상태 등에서 다른 국보급 문화재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국보 승격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경산시 와촌면 산44에 위치한 관봉석조여래좌상은 높이 5.3m, 폭 3.8m로, 1965년 9월 보물로 지정됐다. 매년 250만 명의 참배객이 찾는 대표적인 기도처이기도 하다.

국보 승격 여부는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조사를 거쳐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령 기자

도심포교 성공신화 듣는다

9월 12일~11월 22일까지 부산불교회관서

부산불교신도회관건립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욱태)는 9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도심포교 성공신화 릴레이 초청법회'를 부산불교신도회관 5층 교육관에서 개최한다. 법회는 오후 7시에 열린다.

첫 법회인 9월 12일에는 서울 구룡사 도심포교를 이끌었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이어 10월 12일에는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이 '참다운 행복이란?'을, 10월 18일에는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이 '강남포교의 일번지 포교를 말한다'를 주제로 법문한다. 11월 5일에는 정토회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이 '정토행자의 발원과 실천'을, 11월 22일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간화선 수행과 원력'이란 주제로 각각 설법한다.

이욱태 위원장(부산 해동중학교 교법사)은 "도심 포교의 신화를 이끌어온 선각자들에 많은 가르침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법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051)853-8539 하성미 기자

수계법회 등 사업 발표
이주민불교지원단체협

이주민불교지원단체협의회는 8월 22일 조계종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올해 각 단체의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20여 지원단체가 모여 이주민합동 수계법회 및 문화행사를 연다.

구미 마하붓다센터도 △아시아인의 문화축제(10월) △인도네시아 라마단 축제(11월) △이주노동자 송년의 밤 등을 개최한다. 또한 신특사 부설 이주노동자의 집은 하반기에 목욕서비스(매주 일요일), 의료서비스(매주 수요일), 법무봉사 등을 계속 펼친다.

한꽃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합동법회 △문화예술 현장 답사 △가족 영상 편지 발송 등을 추진한다. 행복한이주민센터도 △한가위축제(9월) △가을소풍(10월) △이주민 송년잔치(12월) 등을 마련한다. 김주일 기자

부산 반야원 간병사 모집

범어사해운대포교원(주지 목종)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감로법을 실천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전해줄 간병사를 모집한다.

9월부터 매월 둘째 주에 개강하는 부산 반야원 간병인 교육과정은 2주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진다.(051)701-5655

하성미 기자

불교방송 이사장에 영담 스님

동표나와 지명 선출

불교방송 새 이사장에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이 선출됐다.

불교방송은 8월 20일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제63차 이사회를 열어 영담 스님을 제6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영담 스님과 종하 스님이 동표가 나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홍승희 임시의장(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영담 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지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 만료된 종하 영담 종범 스님, 구형선 이사 등 네 명의 이사가 재선임됐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에 영담 스님 징계 요청

한국불교기자협의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남배현, 이하 불기협)가 8월 21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 종회의원 영담 스님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불기협은 공문에서 "영담 스님이 교계언론을 향해 '걸레' 운운한 것은 교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라며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불기협은 이어 "중앙종회법 101조(의원의 징계) 1항 8호(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의거 종회의원 영담 스님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백혈병 환우돕기,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백혈병 환우들의 생명을 위해 골수 기증자들을 찾아 나선다.

생명나눔실천운동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9월 6일 오전 11시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8월 29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 이어 조선대와 전남대에서도 각각 9월 13일과 18일에 개최된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조혈모세포 등록자가 적어 백혈병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환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하면 혈액을 채취한 뒤 환자와 일치하는 골수인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의 기증의사를 재확인한다. 그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증을 추진한다.(051)853-0429

하성미 기자

조계사, UCC 동영상 공모 10월 7일까지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불교계 최초로 UCC 동영상 공모를 실시한다.

동영상 공모전은 △불교 수행, 화합, 나눔 △조계사의 과거와 현재 △조계사 슬로건(서울, 만남, 미래)과 관련된 소재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네이버 카페(cafe.naver.com/jogyesauce)나 다음카페(cafe.daum.net/jogyesa)에서 한다.

동영상은 러닝타임 5분 이내로 1편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편당 용량 2M 이상으로 3편으로 제한된다.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40점, 독창성 및 창의성 30점, 기획 우수성 20점, 향후 활용도 10점 등이다. 대상 1명에게 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에게 30만원, 가작 1명에게 5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10월 10일, 시상식은 13일 예정. (02)732-2115 남동우 기자

거사들 위한 불교대학 개강

거사들을 위한 불교대학이 개설된다.

부산 영축선원(주지 반산)은 9월 6일 오후 7시 30분 제1기 '거사 불교대학'을 개강한다.

'거사' 만을 위해 개설된 이번 불교대학은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불교 교리 공부를 실시하며 셋째 주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등산하는 시간을 열어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넷째 주 목요일은 참선을 통해 배운 내용을 체험하는 시간을 연다.

반산 스님은 "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을 위해 거사 불교대학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051)752-0108

하성미 기자

ADHD 자녀 둔 부모교육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이 마련된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동을 위한 제1차 부모 교육'을 9월 3일~17일 매주 월요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날마다좋은날 2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뤄지며, 3일에는 'ADHD 아동 행동의 특징과 치료방법'을, 10일에는 '내 아이와 나와의 관계 돌아보기 행동수정 기법 적용 및 활용', 17일에는 '아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차단하기 및 아이의 학업수행 향상시키기'를 주제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강의한다.

ADHD 아동의 부모나 ADHD에 관심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 7만원.(02)733-7277 여수령기자

생활불교염불봉사단 창립

생활불교염불봉사회(단장 도안)는 8월 24일 청주 상당구청 세미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염불봉사회는 앞으로 염불수련을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불자 환우들을 위로하고, 임종시 전통 불교의례를 무료로 치러줄 예정이다. 도안 스님은 창립법회 인사말에서 "봉사회 활동은 모두 회원들의 보시금으로 운영되며,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는 병원 방문을, 셋째 주 수요일에는 염불수련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더 많은 환우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용 자료 제작 업체 공모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조계종 포교원은 플래시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어린이 포교용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업체를 공모한다.

구성은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3분짜리 플래시애니메이션 12편과 플래시 찬불가 어린이 뮤직비디오 5편.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사업제안서(예산안 포함), 최근 3년간 업무실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포트폴리오 등을 첨부해 8월 31일까지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02-2011-1902)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교원은 9월 3일 제안서 및 1차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

<PR>

우란분절 법어

효심과 불심은 둘이 아니다

원융종 종정 일공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잠으로 무덥고 후덥지근하기만 하던 지루한 장마도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뜨거운 태양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메뚜기도 한때라는 말이 있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름은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셨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때를 써서 시원한 바닷가를 찾아가 신나게 해수욕을 즐겼습니까? 아니면 산사를 찾아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새소리, 물소리와 벗 삼아 불심을 키웠습니까? 아니면 피서는 무슨 피서냐 호통치며 공부나 하라시는 부모님들을 원망하며 불쾌지수를 헤아리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짜증스러운 여름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냈든지 지나간 여름은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미 시위를 떠나간 화살은 되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큼 오늘이라는 현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방학도 끝났고 절기도 말복을 지났으니 해수욕이니 피서니 하는 유혹도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도 오늘부터는 지나간 어제에 미련을 갖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이탈에 들어있는 중요한 불교 행사인 우란분재에 대해서 그 유래와 의의를 말하고 일반 불자 뿐아니라 우리 청소년 불자들이 우란분재를 통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란분절은 범어로 우람바나인데 이를 한문으로 도현(倒顯)이라고 번역 합니다. 도현은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우란분절은 아귀도 등에 떨어져서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망자 즉 삼악도(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행하는 불사를 말합니다.

이 우란분제의 유래를 살펴보면 부처님 당시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제일 뛰어나 신통제일이란 칭호를 얻은 목련존자에게서 비롯됩니다. 목련존자는 먹건련존자라고도 하는데 출가하여 수행을 통해 여섯 가지 신통력을 얻게 되었고 그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어느 곳에 태어나셨는지 살펴보았더니,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태어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어느 곳에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존자의 신통력으로도 어머님이 계신 곳을 알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려서 어머니의 거처를 찾아냈는데 불행하게도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험한 고통을 받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종류도 한량없이 많은데 아비지옥은 무간 지옥이라고도 하는 지옥으로 팔만사천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근심한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고통이 끝이 날 세 없어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간청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어머니를 아비지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아비지옥은 벗어났으나 생전에 너무도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더 고통이 덜한 흑암지옥으로 옮겨졌을 뿐 지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훌륭한 보살들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읽음으로써 흑암지옥에서 어머니를 구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자의 어머니는 이번에는 아귀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란 육도 가운데 한 무리로 항상 목마름과 배고픔에 신음하는 굶주린 귀신을 말하는데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불꽃으로 변해서 더욱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존자는 이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보살들을 청하여 등불을 켜고 많은 산목숨을 놓아 주는 등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써 어머니를 아귀의 몸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으로는 태어나지를 못하고 개로 태어났습니다. 한 마리의 개로 태어난 것입니다.

존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어머니가 개의 몸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개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7월 보름날에 우란분재를 베풀면 너의 어머니가 개의 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7월 보름을 기하여 우란분재를 베풀었더니 어머니는 곧 개의 몸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존자는 개의 몸을 벗어난 어머니를 부처님께 모시고 가서 5백계를 받게 했고 어머니께 "원컨대 어머니는 이제 나쁜 마음을 버리고 바른길로 돌아가시 옵소서" 하고 간곡한 청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효성에 감동한 제석천왕은 존자의 어머니를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래를 가진 우란분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백중절이라는 민속 명절로 정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목련 존자의 일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로 인해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비롯하여 만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아들 딸을 낳았을까요? 이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와 같은 허무 맹랑한 가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에 의하면 연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기의 법칙이란 이세상의 만물은 홀로 도립해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창조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 즉, 서로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달리 말하면 인연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소중
인이란 씨앗과 같고 연이란 물과 공기 햇볕과 같은 것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아무리 따져보아도 알수 없지만 닭은 달걀로 인하여 있고 달걀은 닭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 것만은 아무도 부인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닭은 달걀이 아니고 또한 달걀은 닭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 세상 만물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 즉 연기의 관계요, 인연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인연으로 때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곧 부모와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지금의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것도 다른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건은 만들지만 생명은 만들지 못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능이 아주 다양한 로봇을 만들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기나 파리도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생명의 창조는 불가능 합니다.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각자가 부처님 말씀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요 독립적인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각자가 독립적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여 천 가지 만 가지의 다른 형상으로 존재하고 사람만 하더라도 밉고 곱고 크고 작으면 부모형제 일가친척 남녀의 구별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연이 깊고 얕음입니다. 인이란 씨앗과 같고 연이란 물과 공기 햇볕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불성이라고 하는 동일한 씨앗을 근본으로 하지만 업이라고 하는 연이 다르기 때문에 천 가지 만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이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업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업의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이 소중한 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